돈의문 박물관마을
예술가·건축가·디자이너

www.DMVillage.info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공간 개방시간은 입점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점 단체 개방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마을 소식과 참여 프로그램 정보·마을 입점 단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1 음식문화 | 서울시민 음식학교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1:00-18:00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식문화 공간

G2 아트유통·전시 | 세븐픽쳐스 7Pictures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세븐픽쳐스는 예술·디자인과 아트유통, 워크샵과 공모 및 전시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예술 후원 관련 기획 프로젝트 팀이며, 돈의문 박물관마을 중에서도 특유의 외관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공간

종로구 신문로가 22-2 번지

1955·09.07 신축 목조와급도단즙 주택 2층
1961.12.31 증축 | 1984.05·2013.05 서대문여관

22-2 번지는 1950년에 가옥이 멸실되어 1955년에 2층 목조 주택으로 새로 짓고, 1961년 현재의 건물로 증축하였다. 1984년부터 '서대문 여관'이라는 이름으로 여관을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과거 1937년 신문기사에 동일한 주소에 서대문 여관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 식민기부터 이 자리에 여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관공서 많고 교통이 편리해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출장용 숙소로 많이 이용되었다.
기존 건물은 벽체는 목재와 흙벽 구조를 만들고 후에 증축하면서 벽돌로 보강한 후에 타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1960년대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는 타일로 장식된 외벽을 남기고 내부는 기존의 여관 평면을 의 공간을 살려 구조 보강을 하였다. 목구조트러스였던 이 건축물의 기억을 현대식 목조 트러스로 남겼다.

G3 -1F. 도자공예·도예체험 | 새문안도방

개방 시간 : (화) / (수) / (금) / (토) / 둘째·넷째 주(일) 13:00-20:00

새문안도방은 도자에 관한 지속적인 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도자사 뿐 아니라 소그룹 강연과 워크숍을 병행함

-2F. 음악·미디어 | 하울링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1:00-18:00

전자음악, 실험음악, 오디오 비주얼. 필드레코딩, 퍼포먼스, 사운드 디바이스, 자작악기 등 음악/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공연을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그룹

종로구 신문로가 22-3 번지

1932.11.25 목조와즙 2층 등기등재
1965.11.20 2층 증축
1967.12.16 용도변경신청 (주택>영업용)
?-2009 빨간콩 하안콩 (식당)

22-3 번지는 1932년에 문화주택에 기반을 둔 목조기와건물로 신축되었으며, 1965년에 2층 부분이 증축되었다. 1967년부터 주택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였고, 외부마당이나 담까지 확장하여 실내로 사용하였다. 이후 '빨간콩 하안콩'이라는 콩요리 전문식당이 2000년대 말까지 20년간 운영 했다. 현재는 기존 원형을 유지하면서 확장된 내부를 마당으로 되돌렸다.

G4 공공전시장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종로구 신문로가 25-가 번지

25-가 번지는 조선실업주식회사 경성지점의 건물이 있다가 1950년에 전쟁으로 멸실되고 1956년에 3층 규모의 조적조 주택로 지어졌다. 계단과 층간바닥은 목구조로 만들어졌다. 내부의 조적조 벽체, 창틀 석재 인방보, 잘려진 목재 보에서 기존 구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일부가 학원, 사무실,음식점 등으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ㄴ다지 깡통 생오겹살'이라는 고깃집 식당으로 운영되었으며 인근 회사원들이 저녁 회식 장소로 애용하던 맛집이었다. 기존에 목구조로 만들어진 계단과 층간 바닥은 안정상의 문제로 철골로 변경하면서 구조 보강하였다.

G6 키즈·일러스트·그림책 | 그림책.방

개방 시간 : 매주 (화) - (금) 15:00-22:00
매주 (토) - 첫째·셋째 주(일) 11:00-18:00

'그림책. 방' 은 그림책 방과 전시·쇼룸을 겸한 아트 마켓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 그림책 작가인 선미화를 주축으로 함. 어린이 대상 아트교육과 미술 테라피·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G7 마을 방송국·음식문화 | KBS 요리인류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1:00-18:00

'면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다'는 취지의 '면담'은 식문화 외에 다양한 인문학 예술 관련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함

종로구 신문로가 20-1 번지

1951.01.04 20-1번지 목조와즙 멸실
1964-2008 추정 창조사 | 2008-2015 쿠이(식당)/ LP BAR

1919년에 개인소유였던 건물이 1924년 '신천지' 잡지의 출판사가 자리잡았다. 이 무렵 이 주변에는 상당수의 출판사가 있기도 했다고 한다. 전쟁으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안쪽 건물은 남고 일부 멸실되었다가 1954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1964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창조사'라는 출판사가 운영되었다. 잡지 '학원'의 편집장 이기도 했던 '창조사' 대표 최덕교는 말말장학재단을 통해 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후원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이후 2008년 부터 식당 '쿠이', 카페 'LP BAR'라는 카페를 운영되었다.
갈래길과 옛산길 사거리가 만나는 길목에는 마당과 뽕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 새문안 동네의 주요한 풍경을 만들고 있다. 조선후기에 인근 경희궁의 빈터에 뽕나무를 심고 양잠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며 당시 외국인 작성한 지도에는 경희궁은 뽕나무공원이라고 표기되었었다고 한다. 돈의문박물관 조성사업을 통해 건물외관과 나무가 있는 마당의 모습은 유유지하면서 쓰임에 맞게 변경되었다.

H1 다큐멘터리 사진·보도사진 | docs

개방 시간 : 매주 (화) - 첫째·셋째 주(일) 24시간

보도사진을 기반으로 한 사진작가, 기자, 활동가들로 구성된 그룹.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을 다루며, 마치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듯이 사진과 텍스트로 구성된 작업 <Press Center> 전시를 개최

H2-2 리사이클·전시 | 저스트프로젝트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저스트 프로젝트'는 에코디자인과 쇼룸, 전시,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소개함

H2-3 -2F. 현대미술·전시 | 더 빌리지 프로젝트

개방 시간 : 1F - 매주 (화) - 첫째·셋째 주(일) 11:00-18:00
2F - 매주 (수) - (토) 11:00-18:00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교육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돈의문에서는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H4 -1F. 리사이클 | Fake Carpenters NNR,내내로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 매주 (수) 11:00-16:00

에코, 공예, 디자인, 워크숍과 까페, 마켓으로 구성된 협업 프로젝트로 설치미술 작가들로 구성된 가짜목수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 리사이클링과 재생산의 모토를 가지고 재밌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함

-2F. 한국화교실 | 중앙한국화교실

개방 시간 : 매주 (월) - 둘째·넷째 주(일) 11:00-18:00

-3F. 아카이브 |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개방 시간 : 매주 (화) - 둘째·넷째 주(일) 11:00-18:00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는 서울시 내 등록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H1 - H4. 종로구 신문로가 17-1, 18-1, 19-7, 19-1 번지

1960·80년대 건축

새문안로에 면한 건축물들은 대부분은 1960년-80년대 신축된 건물들이다. 새문안로는 1937년, 1977년에 두번에 걸쳐 도로 확장이 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의 깊이가 좁은 건물이 되었다. 외벽에 타일을 붙여 마감한 수법은 1960·70년대 조적식 구조에서 흔히 쓰이던 방식이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고려병원이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어지면서 대로변 상가건물에는 주로 의수의족을 팔았던 가게와 약국이 많았고, 길너편에 문화방송국 있어서 레코드가게도 있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계단실, 화장실 등을 확충하였다. 건물의 뒷편의 골목길이 어둡지 않게 도로변 건축물의 2층은 골목길 쪽으로 문을 출입문을 두고 옥상마당도 마련하였다.

i1 공연·사운드테라피 | 돈의문 싸운드 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5:00-22:00

'돈의문 싸운드 연구소'는 감각을 통해 다양하게 변하는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ASMR 소리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음악 크리에이터 집단으로써, 현대음악을 기반으로 국악과 월드뮤직퍼포먼스 소리와 음악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 등을 진행함

i2 기록·아카이빙·디자인 | 동네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수) - (일) 11:00-18:00

'동네연구소'는 마을의 기록, 아카이빙과 디자인, 작품 창작을 겸한 오픈스튜디오로써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함. 도시의 역사적 연구와 여러 실측조사 기록 작업의 성과를 담은 전시와 책을 발간하기 위한 연구소

i3 어린이방송국 | 엠투엠미디어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엠투엠미디어'는 어린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오픈 스튜디오로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과 다양한 워크숍을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i5 한국화 오픈스튜디오 | 김선두 한국화 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화) - 첫째·셋째·다섯째 주(일) 11:00-18:00

'한국화연구소'는 중앙대학교 한국화 교수인 김선두 작가의 작업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

i6 조경 | 하루.순 도시온실

개방 시간 : 매주 (수) - (일) 12:00-18:00

'하루.순(하루 Soon)'은 건강한 도시문화 콘텐츠를 생성하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시 조경 프로그램 기획함

i8 와인문화 | 디비알디코리아

개방 시간 : 매주 (화)-(토) 10:00-18:00 / (수)-(목) 15:00-22:00

디비알디 코리아는 와인 및 관련 문화 교육 및 컨설팅 회사로 와인·치즈에 관한 클래스와 워크숍을 진행함

돈의문 박물관마을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기억의 저장고

9월 : 구구절절 마을 소개

www.DMVillage.info

돈의문 박물관마을
예술가·건축가·디자이너

www.DMVillage.info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오래된 도시조직, 삶과 기억, 역사적 층위가 잘 보존되어 재생한 국내 최초 마을단위 도시재생 사례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시민과 함께 생활예술을 실천하며 창의적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개방형 창작 마을입니다.

A2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3.1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국 출신 캐나다 의학자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자유민주·박애정신을 선양하고, 애국심과 인류애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A3 아카이빙·기록 | 헤비급

개방 시간 : 매주 (목) / (토) / 첫째·셋째 주(일) 11:00-18:00

매체예술을 전공한 윤하민과 문학을 공부한 신은주로 이루어진 시각예술그룹으로 돈의문에 관한 연구 및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 프로젝트로 연결함

생활공예 | 동방시각예술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전통 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인 '민화'와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림

A4 동네투어·드로잉 | 스케치여행

개방 시간 : 06.28.(목) / 09.27.(목) 10:00-17:00

서울의 의미 있는 역사 문화현장을 답사하며 시민들과 스케치 작업을 하는 아마추어 미술 동아리

전시 | 우리슬

개방 시간 : 매주 (목) / 둘째·셋째 주(일) 11:00-18:00

비슷한 구조와 획일적인 공간에 거주하면서 중첩되는 개인의 삶과 집에 대해 작업하며, 공간과 개인을 사유하는 여정이 담긴 워크숍을 진행함

심리체험 | 감김에열리다

개방 시간 : 매주 (금) - (토) 13:00-20:30

아스팔트 빌딩 속 무감각한 현대 사회인들과 시민들에게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며, 오감 심리 체험을 통해 체험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창작하는 워크숍을 진행함

종로구 신문로가 7-7번지

1931. 7번지 일대 도시한옥
1980. 주택·과외방·하숙집 등 | 1989. 문화칼국수

7-7번지는 1931년도에 도시한옥으로 조성되었으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7년간 "문화칼국수"란 이름으로 운영되던 식당이었다. 1989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이전까지는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며 용도 변경 직전에는 하숙집이었다고 한다. 문화칼국수라는 이름은 당시 정동에 있던 문화방송(현 MBC)에서 따왔다. 7-7번지 운영 초기에는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활용하다가 이후 전체 공간트고 한옥마당과 경희궁쪽 마당까지 지붕을 만들어 넓게 사용하였다. 식당 공간의 증축으로 인해 일부 변형이 있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는 공간이다. 넓은 창문을 통해 경희궁이 녹지가 보이는 풍경과 더불어 충청도식 슴슴한 멸치국물 칼국수와 파전이 점심메뉴로 인기였다.

A5 창작·공연 | 더 그레잇 커미션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3:00-19:00

관객과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이 함께 하는 현대미술창작그룹

B2 근현대 그림책 연구 | 두근두근 그림책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화) - 둘째·넷째 주(일) 11:00-18:00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각 지역에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작가와의 만남 · 그림책 콘서트 · 그림책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B3 정원문화·교육 | 서울시민정원사회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0:00-18:00

식물과 정원을 사랑하는 정원사들의 모임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정원 조성 · 관리 및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도시녹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함

B7 아카이빙·기록 | 모두모두

개방 시간 : 매주 (수) / (금) / (토) 10:00-18:00

모두모두는 생활사를 통한 지역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작업 및 어린이를 위한 역사·세시풍속 · 문화 교육 진행함

예술공예 | 그리GO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예술 활동'을 통한 놀이, 창작, 발상, 발견, 소통을 제시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는 행복한 자아 성장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온신의 힘을 다하는 그룹

B8 근현대한국복식·공예 이혜미, CompanyAHN

개방 시간 : 매주 (화) - 둘째·넷째 주(일) 11:00-18:00

한복연구가 이혜미와 공예연구가 안태정은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특성에 부합한 근현대 한국복식 및 공예를 전시, 워크숍, 마켓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생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및 실행함

B9 음식문화 | 키친레브쿠헨@돈의문

개방 시간 : 매주 (화) - 둘째·셋째 주(일) 11:00-18:00

나카가와 히데코는 요리연구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개념의 요리교실을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진행함

종로구 신문로가 7-11, 7-18, 7-19 번지

1931년 7번지 일대 도시한옥
1980년대 경향신문 배달소년 기숙사로 운영
1990년 7월 풍미추어탕

7-11 번지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경향신문사가 매입한 뒤 지방에서 올라와 자립하려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되었다. 낮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신문 가두판매를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식당 '풍미추어탕' 운영을 위해 한옥집을 개조하였고 7-18, 7-19번지를 매입한 뒤 연결하여 증축하였다.

C 커뮤니티센터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첫 번째 공간

종로구 신문로가 7-22 번지

1930년대 목조스레트 2층 영업용 건축물
1991년 철근콘크리트 5층 신축
국도레코드, 미래향, 커피와 쟁이 등

7-22 번지는 1931년에 토지구획정리 되면서 원래 일본식 목조스레트 지붕 2층 영업용 건물이 세워졌던 곳이다. 1990년에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1991년에 현재와 같은 건물을 세우고 대중음식점과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입면의 기하학적인 창문의 모양은 1990년대 건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90년대 '국도레코드'라는 연예기획사가 있어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의 방문이 잦았고, 2003년 부터 근래까지 '미래향'이라는 중식집이 운영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1층에 있던 '커피와 쟁이'라는 커피숍은 핸드드립 커피 매니아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었다. 돈의문박물관사업을 통해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워 부분을 증축하고 지하실에 선큰을 만들었다.

D 서울도시건축센터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서울도시건축센터는 서울 도시건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 , 시민 및 전문가를 위한 전시, 교육 , 행사 공간 조성 제공, 공유 창작 및 창업 공간 지원 등으로 신진 건축가를 지원 하며 '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연계한 문화재생사업 등을 추진함

종로구 신문로가 6 번지

1932년 유한양행 신축 | 1962년 강원산업
1977년 6·3번지 증축 | 1990 6번지 증축 | 2000 인천제철

1926년에 종로2가 ymca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유한양행은 1932년에 이 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이전하였다. 신문로2가 지역에는 1920년대부터 근대회사들의 사옥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근대한양도성이 있던 언덕길의 모양을 따라 3개의 서양식 건물을 새로 짓고 1936년에 주식회사로 상장하였다. 유한양행은 1962년에 신대방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30년간 본사로 이용하였다. 이후 강원산업과 현대제철이 1962년부터 2000년대 초지 40년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77년과 1990년에 증축하였다. 각기 다른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같은 색으로 사용 칠해서 하나의 회사로 쓰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교남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유한양행 사옥 중 2채는 철거되었지만 원래 조적조 구조의 창문 스타일과 도로를 따라 생긴 곡면의 입면을 유지하며 새로 만들었다. 남아있는 1채의 왕대공트러스 2층 석조 건물은 도색된 부분을 제거하여 본래 재질이 드러나도록 했다.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층 바닥을 없애고 철골로 보강하였다.

F1 리사이클 | 래;코드 RE;CODE

개방 시간 : 매주 (화) - 둘째 주·마지막 주(일) 11:00-18:00

래코드에서는 버려지고 있는 엄청난 의류 재고품과 생활용품 소재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젊은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함

종로구 신문로가 32-1 번지

1930s 일본인 주택 신축 | 1954.01.04 국가소유
1970.10.01 증축 | 2000.08-2014 연정가

32-1번지는 1930년대에 일본인 주택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여러 번의 증축을 거쳤다. 2000년대부터 2014년까지 14년가 '연정가'라는 식당으로 운영되었는데 즉석 순두부찌개와 대구매운탕이 주요 메뉴였다.

F2 전통공예·디자인 SOH /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개방 시간 : 매주 (화) - (토) 11:00-18:00

SOH와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는 전통공예디자인과 전시 강연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건강한 살림살이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쓰임새를 담아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연구소

종로구 신문로가 30-1 번지

1956.10.30 신축 (목조와즙 주택 2층 신축)
1970.10.01 증축 | 1956-2015 주택

30-1 번지는 1956년에 신축되어 전체적으로 변형없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건물의 배치와 1층 평면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채와 아래채로 나뉜 한옥 평면이고, 2층은 테라스와 서재 등 사양식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는 일식목구조에 오오가베, 아라이다시기법을 쓴 한일양식 절충식 가옥이다. 일제식민기와 전쟁 이후의 시대의 한옥의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F3 금속공예·목가구 | 돈의공방

개방 시간 : 매주 (화) - (일) 11:00-18:00

목수 김윤관, 금속공예 신혜림 작가로 이루어진 '돈의공방'에서는 최고의 수준의 목가구와 금속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고, 공예에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강연을 진행함

돈의문 박물관마을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www.DMVillage.info

- F 마을 축제 FESTIVAL
- E 전시 EXHIBITION
- P 공연 PERFORMANCE
- C 클래스 CLASS
- W 워크숍 WORKSHOP
- S 세미나 SEMINAR
- T 마을투어 TOUR